

[국민성장펀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

모 두 말 씀

2026. 7. 20. (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억 원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민성장펀드의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인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된 지도
어느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투자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흐름을 미래와 혁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에너지를 포함해

우리경제의 미래를 바꾸고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이 될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금부족과 높은 위험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고,

AI반도체와 신약개발, 방산수출과 같이
우리나라 대표 첨단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II. 초장기기술투자펀드 도입 필요성

지금 세계는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기술전쟁이자 투자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최첨단 기술과 제품, 모델을
경쟁국가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바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에 의존하는 주력산업 핵심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국민성장펀드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누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멀리보고”,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 운용사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을 열고 시장의 질서를 바꿀
원천기술과 게임체인저에 대한 투자는 아쉽다는 평도 있습니다.

펀드의 존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내에 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달성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술의 성장과정을
짧은 금융의 시간 안에서 평가해 온 것입니다.

Ⅲ.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주요 특징

1. 기술의 시간에 맞는 장기투자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기술의 시간과 금융의 시간을 맞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우선, 전체 펀드자금 중 정책자금의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총 8,800억원의 자원 중 6,8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부담하여
민간의 펀드 결성부담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펀드의 존속기간도 최대 15년까지 확대합니다.

단기적인 회수가능성보다
기술의 잠재력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할 것입니다.

한 번 투자하고 떠나는 펀드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오랜기간 동안 성장하는 펀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구조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1회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함께하면서 추가투자를 유도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조기회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도 새롭게 설계할 것입니다.

2. 운용사 선정 기준의 혁신

운용사를 선정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술기업에 투자하려면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기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의 수준과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고,
투자이후 기업의 성장을 밀착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핵심운용인력의 기술 전문성과 투자경험,
기업의 가치를 실제로 밸류업한 성과,
기술평가 역량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운용인력의 성과에 대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갖추었는지도 살피겠습니다.

3.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 KSTP 설립 추진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정책금융의 입장에서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도전과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금을 출자하고 운용하는 시장 참여자,
유망기술을 개발하시는 산업계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답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초장기기술투자펀드의 출범을 계기로
기술을 잘 아는 운용사가 좋은 기술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편, 양자컴퓨팅이나 첨단바이오기술처럼
미래를 이끌 원천기술에 투자하려면
초기단계부터 기술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
이러한 전략기술 투자를 이끌어갈 전문역량이 있는
운용사가 부재하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의 가치와 시장성을 꿰뚫어보는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설계·조달하는
“금융”기법이 결합된

기술특화 자산운용사(KSTP)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미래전략기술에 대한 초장기·대규모 투자의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해가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오늘 공청회는
초장기 기술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을
국민성장펀드의 참여자들이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제시해주신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펀드의 구조와 운용방안을 정교하게 다듬겠습니다.

초장기기술투자펀드가
미래의 게임체인저를 먼저 발견하고,
기술이 산업으로 꽃 필 때까지 함께하는
튼튼한 인내자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